

윤장현 시장 U대회 현장·현안 직접 챙긴다

테니스장 등 찾아 철저 시공 주문...식품·숙박 대책회의 지원단협의회 발족...의료 등 각 전문 분야 800명 구성

윤장현 광주시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과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윤 시장은 17일 오전 광주 U대회 신설 경기장인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시공을 통해 명품 경기장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이날 “평소 같으면 완공 후 하자 등을 보수할 수도 있었지만 U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 하나의 하점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등 대회기간 방문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경기장이 애물(단자)이 아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구, 체육단체가 함께 고민해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현안 보고회와 함께 분야별 준비상황·경기장 건설현장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주경기장,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남부대국제수영장, 광주국제양궁장 등 신설 경기장 및 선수촌을 비롯한 화순하니움문화센터, 나주공설운동장 등 전남지역 주요 경기장·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시장은 또 이날 오전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 대한수박업중앙회, 공정거래사무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보고회를 열고 식품

료 안전관리, 숙박 등 현안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도 논의했다.

윤 시장은 “U대회는 광주·전남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서 이제 실천단계로 들어가 모든 분야에서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아랍권 선수단에 대한 할랄 인증식품 준비, 북한 선수단에 대한 대책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현길 대한수박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은 ▲패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활동 ▲숙박업소에 U대회 마크를 새겨 넣은 인증표찰 부착 ▲객실 내에 U대회 마크가 새겨진 종이컵 보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역 오피니언리더들로 구성된 U대회 분야별 지원단협의회도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U대회 분야별 지원단 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베네치아에서 윤장현 시장·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원단의 단장, 부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고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광주U대회 분야별 지원단은 의료계, 법조계, 예술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리더 80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특히 광주의료인지원단, 공간디자이너지원단, 광주학부모지원단, 광주음악인지원단, 광주무용인지원단, 광주미술인지원단, 광주건설산업인지원단, 광주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단, 광주법조인지원단, 광주장로회지원단 등 10개 지원단이 구성돼 각 전문 분야별로 대회 지원에 나선다.

■U대회 성공 위해 하나된 광주



17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에서 열린 광주U대회 분야별 지원단 협의회 창립 총회에서 의료계, 법조계, 예술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분야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7일 서구 상무역 광장에서 하계 U대회 기간 중 지하철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결식을 갖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권 관광인프라 개발

환경·역사 스토리텔링 추진 김덕령 추모제 등 축제 개최

광주시는 17일 “무등산국립공원과 연계한 무등산권(광주호~시가문화권~무등산)의 유·무형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남의 상징인 무등산에 펼쳐진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고, 생태·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특성과 무등산 청정 자연환경, 시가문화권, 문화재, 역사인물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트레킹·생태관광·역사문화·수학

여행코스 등 다양한 탐방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관광명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시민과 관광객 다수가 참여하는 무등산을 소재로 한 김덕령장군추모제, 퓨전국악제, 가사문화예술제 등 체험형 축제를 개최하고, KTX 개통과 U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지역의 메가 이벤트와 연계하는 ‘1박2일’ 관광객 맞춤형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광주만의 참신하고 특색있는 무등산권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한 미소·전절운동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후계농업경영인 24명 선정

특·광역시 중 최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광주지역 농업인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24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수한 농업인들을 발굴해 최대 2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FTA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 5년 이상 된 후계농업경영인 중 경영 성과가 우수하면 추가 로 최

대 2억원(연리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지원된다.

광주지역의 후계농업경영인은 올해 24명을 포함, 지난 1981년부터 총 662명이 육성됐다. 영농자금 지원, 경영교육 등을 통해 경영혁신, 기술개발, 유통개선?가치창출 등 광주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혜경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우수 후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잠재한 농업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요원 교육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감염병 진단요원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5개 구 보건소 검사요원, 병·의원 검사실 담당자, 동·서부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와 식품위생 공무원 등 모두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집단식중독 발생 시 신속 정확한 검사법, 올바른 검체 채취와 운송방법,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위생지도 관리 등을 추가했다.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발생 사례를 분석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제1군 법정 감염병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 교육을 진행해 감염병 검사 능력을 높이고, 결핵 진단방법과 HIV/AIDS 확인진단 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도 특강도 실시한다.

또 각 구 감염병·식중독 담당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해 식중독과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계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감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U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생 모집...각 지역 새일센터서

8000명 대상 23일부터 접수 도배·CAD 등 취업 특화 과정

광주시는 17일 “경력단절여성 8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취업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2015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과정은 ▲도배기능사 자격증

반(광주여성새일센터) ▲AUTO CAD과정(광주서구새일센터) ▲여성장애인 바리스타과정(송원대새일센터) ▲급식실무취업과정(북구새일센터) ▲광고편집디자인(광산새일센터) 등 35개 과정이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별로 특화된 취업유망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과 취업 의지가 높은

미취업여성이며, 훈련생 자비부담금 10만 원을 교육 참가신청서 예치하면 수료 후 5개월, 1년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시 5만 원을 환급해준다.

교육생은 5개 새일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1개 과정 당 24명 내외로 각 센터별, 과정별로 모집한다. 자세한 문은의는 광주여성새일센터(062-511-0001), 서구여성새일센터(062-613-7891~3), 송원대새일센터(062-360-5902), 북구여성새일센터

(062-266-8500), 광주여성새일센터(062-1577-2919)로 하면 된다.

교육훈련 기관인 새일센터는 훈련생 모집과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여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여성들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정남향, 2013년 신축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매매 - 1억 7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 5층 중 2층 34평
- 방 3, 화장실 2, 거실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